

▶ 달러/원 주간 전망

• 단기 랠리 지속할 수 있을까... 위안화 변동성 트리거 주목

서울, 12월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지난주 한 단계 더 박스권을 낮춘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위안화와 수급 여건 따라 등락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0-1,320원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조절 발언에 달러/원의 박스권은 한 단계 더 떨어졌다.

표면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유지하고 최종금리도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발언 자체가 그렇게 도비시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폭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며 연준 피벗 기대를 꺾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글로벌 달러가 정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해석 아래 달러지수는 지난 8월 이후 최저치인 104선까지 떨어졌고, 달러/원 환율은 어느덧 1,290원대로 내려섰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심리와 수급 측면에서 달러/원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는 조짐도 일부 엿보인다. 이런 가운데 금주 특이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환율은 글로벌 달러와 위안화 동향을 살피며 단기 저점 찾기 노력을 이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는 국면에서 위안화 약세 되돌림의 진행 여부와 강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로 갈수록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거래 유인이 줄면서 시장 호가가 계속해서 얇아지는 상황에서 환율은 수시로 보폭을 확대할 위험이 더욱 커졌다. 이런 가운데 위안화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국내 외환 시장의 반응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환율 반락에 따른 저점 결제수요가 뒤따르겠지만,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할 때는 추격 매도세도 자주 목격되는 경향이 있어 수급에 따른 환율의 거친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금주 발표되는 주요 해외지표와 일정으로는 미국 11월 제조업 지표와 중국 11월 수출입 및 물가지표,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등이 있다. 한편 국내 지표로는 10월 국제수지 등이 있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2월5일(월)

- ⊙ 한국은행: 2022년 11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한국은행: 최근 임금 흐름에 대한 평가 및 가격전가율 추정(BOK이슈노트 2022-44) (12: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발간 (12:00)
-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 (12:00)

12월6일(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09:10)
- ⊙ KDI: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 개최 (09:30)
- ⊙ 금융감독원: '22.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14:00)

12월7일(수)

- ⊙ 금융감독원: 원장 연구기관장 간담회 (10:00)
- ⊙ 한국은행: 금리상승시 소비감소의 실질적 효과: 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 (BOK이슈노트 2022-45) (12:00)
- ⊙ KDI: KDI 경제동향(2022. 12) (12:00)
- ⊙ 금융감독원: '22.9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14:00)

12월8일(목)

- ⊙ 금융감독원: 2022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06: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10:00)
- ⊙ 한국은행: 2022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회 본회의 (14:00)

12월9일(금)

- ⊙ 한국은행: 2022년 10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제22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10:00)
- ⊙ 한국은행: 2022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회 본회의 (14: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2월5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최종치	11월		50.0
12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1월		48.4
12월5일	18: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치	11월	48.6	48.6
12월5일	18:30	유로존	셴틱스지수	12월		-30.9
12월5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10월	-1.7%	0.4%
12월5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치	11월		46.1
12월6일	00:00	미국	고용추이	11월		119.57
12월6일	00: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10월		1.0%
12월6일	00:00	미국	공장주문 MM	10월	0.8%	0.3%
12월6일	00:00	미국	공급관리협회(SIM) 서비스업 PMI	11월		54.4
12월6일	08:30	일본	가계기출 YY	10월		2.3%
12월7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제조업지수	12월		2
12월7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서비스업지수	12월		20
12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1월		1,194.6B
12월7일		중국	수출	11월		-0.3%
12월7일		중국	수입	11월		-0.7%
12월7일		중국	무역수지	11월		85.15B
12월7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10월		-0.7
12월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10월		-3.8
12월7일	19:00	유로존	GDP 수정치QQ	3분기	0.2%	0.2%
12월7일	21: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12월2일 주간		208.1
12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11월		3.052T

12월8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10월		24.98B
12월8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11월		2.7%
12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10월		909.3B
12월8일	08:50	일본	GDP 수정치 QQ	3분기		-0.3%
12월8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28일 주간		225k
12월9일	10:30	중국	PPI YY	11월		-1.3%
12월9일	10:30	중국	CPI YY	11월		2.1%
12월9일	22:30	미국	PPI 최종수요 YY	11월		8.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2월5일(월)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STI·동남아시아중앙은행기구(SEACEN) 공동 주최 행사서 기조연설 (오전 10시45분)
- ⊙ 스웨덴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후 5시30분)

12월6일(화)

-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결과 (오후 12시30분)

12월7일(수)

- ⊙ 캐나다은행, 금리 발표 (자정)

12월8일(목)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연례 컨퍼런스 사전녹화 개회사 (오후 9시)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행사 참석 (9일 오전 3시)

12월9일(금)

- ⊙ 연방준비제도, 분기 금융계정 발표 (10일 오전 2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크레디트스위스, 시험대 위에 오르다

크레디트스위스 경영진은 최근 제시한 전략 계획이 투자자들을 모으기에 충분한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위한 증자 계획에 크레디트스위스의 주가는 최근 신저점을 경신했는데,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8일 심판의 순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펀드매니저가 지적했듯이 수익성 전망이 훨씬 뚜렷하지만 그에 비해 낮은 주가에 거래되고 있는 은행들도 많다. 투자자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 산타 랠리 기대 속 경계감도

올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시장은 평온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며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는데, 엄격한 코로나19 통제정책과 리오프닝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또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의 회의가 수 주 내에 예정된 가운데 금리 고점이 얼마나 빠르게 다가올지에 대한 추측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금리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과 중국의 리오프닝은 일부 시장에는 환호할 이유가 된다. 신흥 시장 증시는 2009년 이후 최고의 월간 성적을 거뒀다. 수 개월간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렸던 시장에 이제 산타 랠리가 시작될 때가 된 것 같다.

⊙ 美 인플레이션 추세에 일고 있는 변화

미국 경제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375bp 인상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는 5일 발표될 미국 서비스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지표에서는 서비스업계가 근 2년 반 만에 가장 더딘 성장세를 보였는데도 기업들의 투입 물가는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추세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연준의 전면적인 노력에도 물가 잡기가 예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 호주 중앙은행 금리 인상은 마지막이 될까?

호주 중앙은행은 6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인플레이션이 예상 밖으로 둔화되며 머니마켓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등장했지만,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원이 인상을 예상했다. 다만 일부는 이번이 현재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과 달러 약세가 주도하고 있는 호주달러의 랠리가 반드시 중단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 OPEC+ 산유량 회의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는 4일 회의에서 중국 경제 둔화가 수요에 미칠 영향과 주요7개국(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제한이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산유량 목표치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제한 및 전면적인 금수조치 시행을 앞두고 열렸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는 수요와 가격에 대한 부담을 키웠다. 최근 조사에서는 브렌트유가 올해 남은 기간

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것이나 내년 경제 우려 확산에 따라 93달러 부근으로 하락하리라고 예측됐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로이터 넥스트 단독)-한은 총재 “경기둔화·인플레 완화 따른 韓 통화긴축 페이스 재조정”

11월30일 (로이터)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현시점엔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만, 물가와 경기가 상충되는 가운데 향후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질 경우 통화정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로이터 넥스트 행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국내 성장 속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 물가 상승세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통화 긴축의 속도 역시 그에 따라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은이 이번에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 중 90%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긴축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해 국내 외환시장이 받는 압박을 줄임으로써 한국 통화당국이 국내 요인을 좀 더 고려할 여지가 생겼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11월 금통위 회의에서 최종금리로 세 명의 위원이 3.5%를, 두 명이 3.75%, 한 명이 3.25%를 제시했지만 여기엔 많은 조건이 달려 있다고 밝혔다. 12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첫번째 고려사항이며 국내 물가 하락 속도와 경기 둔화폭,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기업어음(CP) 시장 등의 움직임 등이 고려 요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통화당국의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5%가 넘는 물가에 3.25% 기준금리라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을 감안하면 과도 긴축은 미래에 경기가 더 하락할 때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금은 물가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지만 향후 경제 성장률이 예상한 것보다 낮아질 경우 정책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 긴축의 속도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소프트랜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재는 물가가 최대 현안이었을 때 시장의 기대를 앞서는 통화정책이 가능했지만 현시점에 시장 수익률곡선(커브)을 앞서가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이 총재는 "9월과 10월에 투자자들에게 환율 수준에 대해 경고를 하는 건 쉬운 일이었다"며 "1450원대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저평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임승규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①)-단기 하향 안정 기대... 연준 속도조절·中 제로 코로나 주목

12월1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추이 관련 불확실성에 주목하면서도 12월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에서 하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88.1-1,358.8원으로 파악됐다.

전문가 대다수는 연말을 앞두고 달러 강세의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50bp 금리 인상 등 속도 조절 가능성이 폭넓게 점쳐지고,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달러 약세가 예상됐다.

수출업체들의 연말 네고와 계절성 요인도 달러/원 환율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이 127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되고 자본 유입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하락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한, 중국 코로나 재확산 및 제로 코로나 정책의 향방에 따른 위안의 움직임도 달러/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도 상방 요인으로 주목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되돌림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월 월간 기준으로 달러/원 환율은 105.5원 하락해 2016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바 있다.

※ 전문가별 코멘트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팀장	1,300	1,380
우리은행	박범석 대리	1,270	1,360
중국공상은행	유원준 팀장	1,270	1,370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270	1,330
DGB대구은행	이응주 차장	1,270	1,350
IBK기업은행	임기묵 차장	1,280	1,350
KB국민은행	신원희 차장	1,300	1,365
KDB산업은행	류흥 대리	1,290	1,370
NH농협은행	성혜미 과장	1,280	1,36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310	1,370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300	1,35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317	1,350
		1,288.1	1,358.8

(편집 임승규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시장진단)-달러/원 1,290원 지지력 살피며 단기 랠리 저울질... 오버슈팅 인식도 여전

서울, 12월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올해 마지막 달 첫 거래일에서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며 5개월 만에 1,200원대로 복귀하자 단기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개장 직후 환율은 한때 1,290원대 중반으로 밀려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한 달에만 무려 100원 넘게 떨어져 2016년 3월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하는 등 최근 매서운 속도로 진행되는 달러/원 하락세 속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의 단기 랠리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는 가장 큰 재료는 당연 달러 약세다. 그때그때 수급과 위안 변수 따라 일시적인 보폭의 차이가 생기는 하지만 원화는 달러 행보를 비슷하게 따르고 있다.

한동안 달러지수 상승보다 가파르게 올랐던 달러/원 환율은 하락 속도도 최근 다소 빨라서 이제는 연간 기준 달러지수와 달러/원 환율 상승률이 10% 부근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재차 확인시켜준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은 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 따른 긴장감은 덜어내는 모양새다. 이에 달러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이에 달러/원은 정신없이 뒷걸음질 치며 어느덧 시장 참가자들이 유의미하게 여기는 1290원 선 지지선까지 내려섰다.

▲ 달러/원 1,290원대 지지력 우선 주목..단기 급락 경계감도

시장 참가자들은 달러/원 환율이 지난 10월 1,440원대로 급등할 수 있었던 시발점인 1,290원대 지지 여부를 우선 살피는 분위기다. 만약 이 지지선이 쉽게 뚫릴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달러/원 중기 상승 추세의 시작이었던 1,295원 선이 무너질 경우 이러한 중기 상승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최근 1차 상승 트렌드였던 1,290원 선이 깨지면 일시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환율이 하방 압력을 꾸준히 받는 상황에서 수급도 추격 매도세가 돋보인다. 11월 말 환율이 큰 폭 하락할 때도 수출업체들이 물량을 서둘러 내놓은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다만 최근 달러/원 환율 급락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유동성이 취약해 적은 수급에도 환율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만큼 현재 환율 움직임 자체가 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만약 환율이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연말 랠리로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C 은행 외환 딜러는 "남은 연준 이벤트나 주요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단기 한정적으로 일종의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율은 1,270원 선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원화가 이 속도로 강세 흐름이 계속될 것이냐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연말까지로 본다"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된 11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급감해 2020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한국 수출의 양대 버팀목인 반도체(-29.8%)와 대중국 수출(-25.5%)이 급감했다. 한편, 핵심 외환 수급 지표인 무역수지는 8개월째 적자를 이어갔고, 월간 적자 규모는 70억달러대로 확대됐다.

수출 경기와 무역수지 악화 추세 속에서 원화의 가파른 강세가 지속되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D 은행 외환 달러는 "펀더멘털과 수급 지표 개선 없이 달러/원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밀리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편집 유준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월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99.9	1.8%	-8.5%	-8.6%	유로	1.0540	1.4%	-7.3%	-6.9%
100엔 대비	966.7	-0.7%	6.9%	+1.8%	엔	134.32	3.6%	-14.3%	-10.3%
유로 대비	1,368.5	1.5%	-1.2%	-1.9%	위안	7.0500	1.6%	-9.9%	+2.7%
위안 대비	184.96	0.8%	1.1%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4,429.88	0.2%	-5.3%	+18.7%
코스피	2,434.33	-0.1%	-18.2%	+3.6%	나스닥	11,461.50	2.1%	-26.7%	+21.4%
코스닥	732.95	-0.1%	-29.1%	+6.8%	S&P500	4,071.70	1.1%	-14.6%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12.70	3.7%	-18.6%	-4.9%
국고채 3Y	3.616%	-2.8bp	181.8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632%	-3.8bp	162.1bp	+67.6bp	미국채 2Y	4.280%	-19.0bp	355.0bp	+61.0bp
국고채 10Y	3.583%	-4.0bp	133.3bp	+53.7bp	미국채 10Y	3.490%	-20.0bp	198.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80.34	5.0%	6.5%	+55.8%	한국 5Y	48.9bp	-2.6bp	26.9bp	-0.7bp
금(현물)	1,797.95	2.4%	-1.7%	-3.6%	일본 5Y	25.3bp	-5.0bp	7.7bp	+2.1bp
TR상품지수	3,338.56	0.8%	0.0%	+24.6%	중국 5Y	73.3bp	-3.0bp	32.1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